

2021년 보험산업 전망

김세중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장

2020.10.16

목 차

1. 경제·금융 환경
2. 보험산업 주요 동향
3.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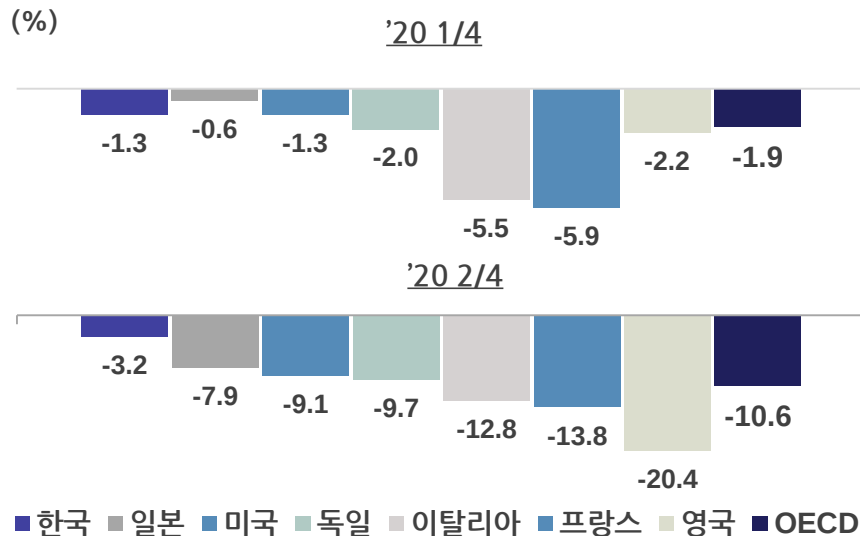
1. 경제·금융 환경

- 1) 세계경제
- 2) 국내경제
- 3) 금융시장
- 4) 2021년 국내경제 전망

1) 세계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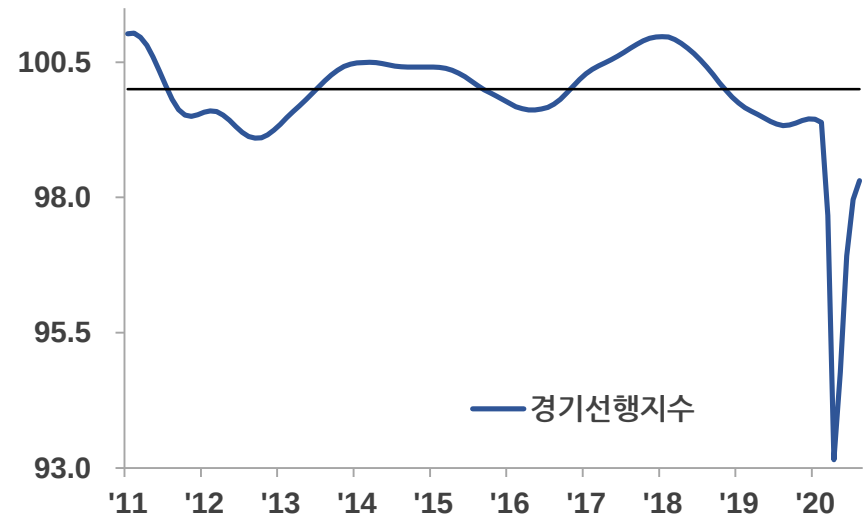
-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OECD 경제규모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각 1.9%, 10.6% 감소함
 - 코로나19 확산이 지속중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의 GDP 감소가 두드러짐
 - 코로나19의 확산을 조기 진화한 우리나라 GDP 감소는 상대적으로 양호함
- OECD 경기 선행지수는 4월 이후 반등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점인 100을 하회함

OECD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OECD

OECD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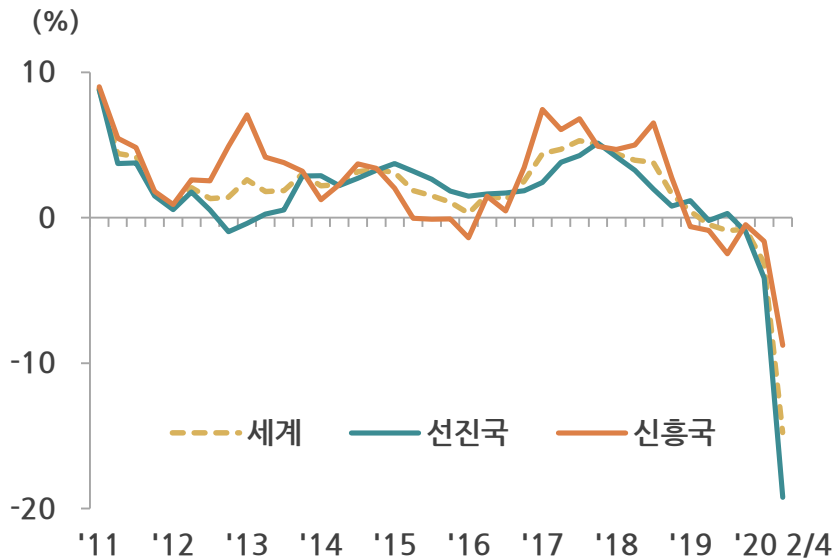


자료: OECD

1) 세계경제

-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로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큰 폭 감소함
 -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큰 선진국의 무역규모 및 산업생산 감소가 두드러짐
- 세계 무역규모 감소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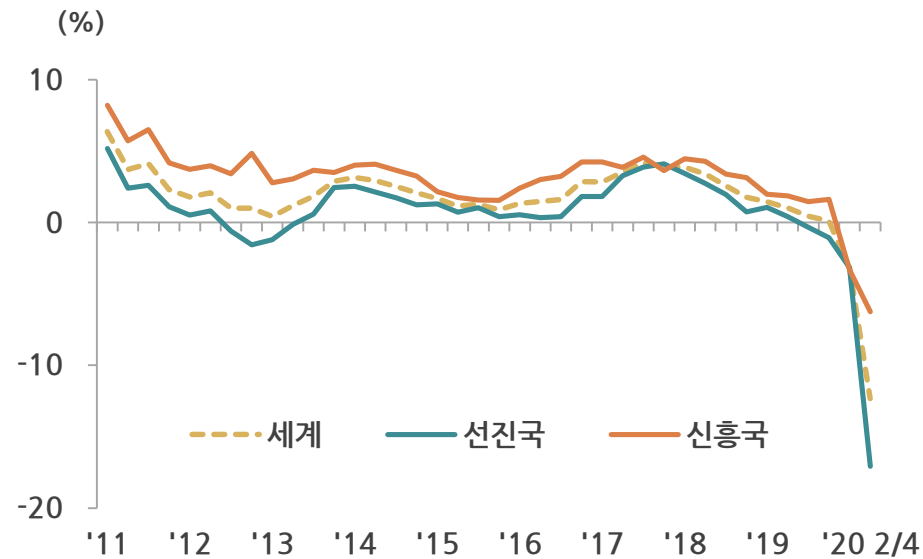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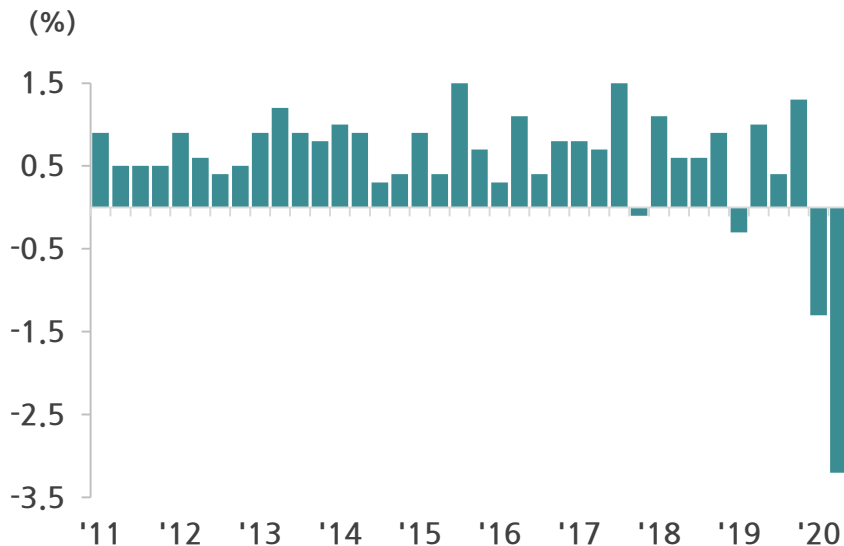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2)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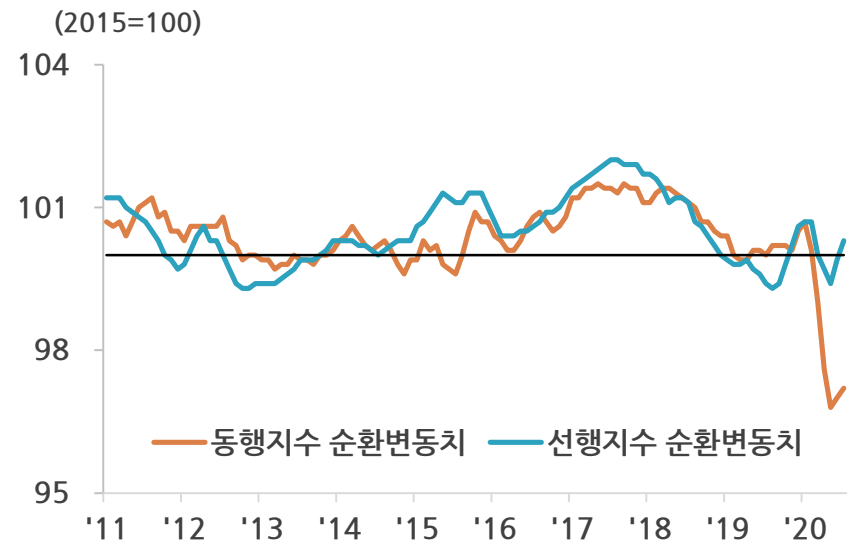
- 우리나라 GDP는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3%, 3.2% 감소함
 - 2/4분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면서 수출입이 크게 감소하였음
- 경기동행지수는 회복세가 미약하며, 선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소폭 상회함

분기별 GDP 성장률



주: 전기 대비 성장률임
자료: 한국은행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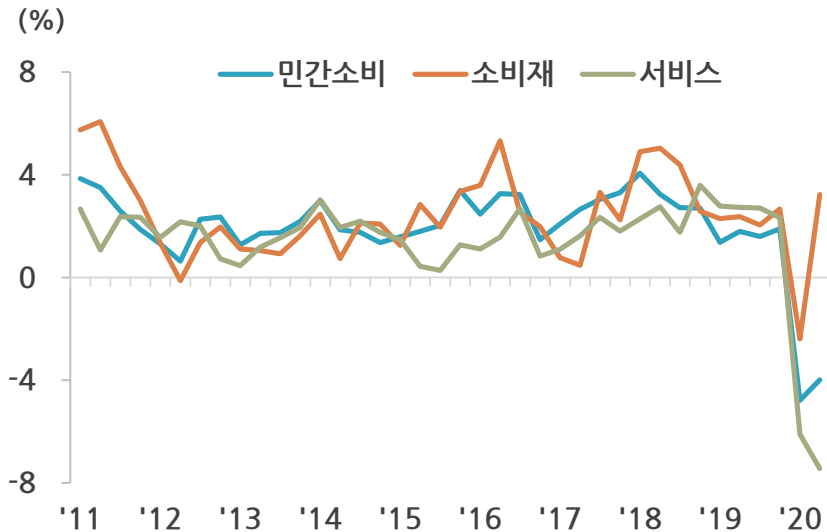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국내경제: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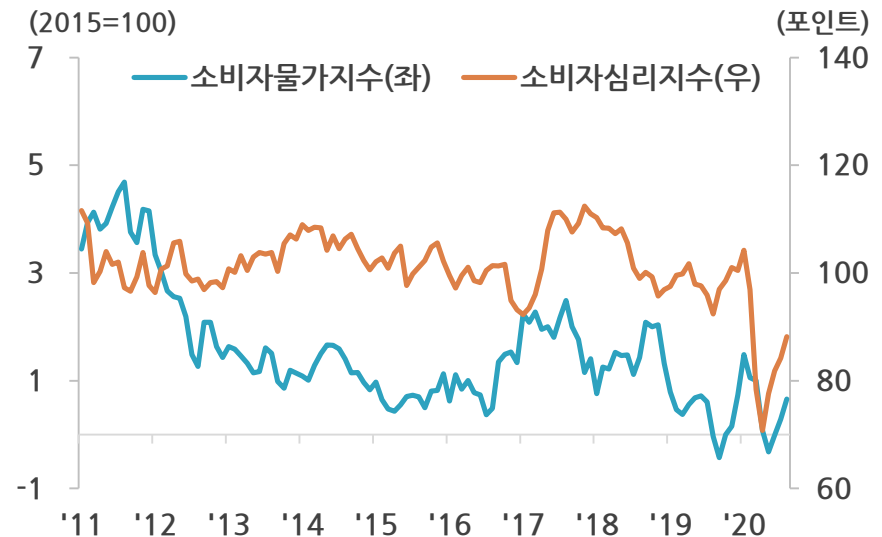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1/4분기 큰 폭 감소 후 2/4분기도 감소세를 지속함
- 2/4분기 재화소비는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 대면영업이 필요한 서비스업은 1/4분기보다 악화됨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폭 개선에 그쳤으며, 소비자 물가지수는 0%대에 머물고 있음

민간소비 증가율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지수 및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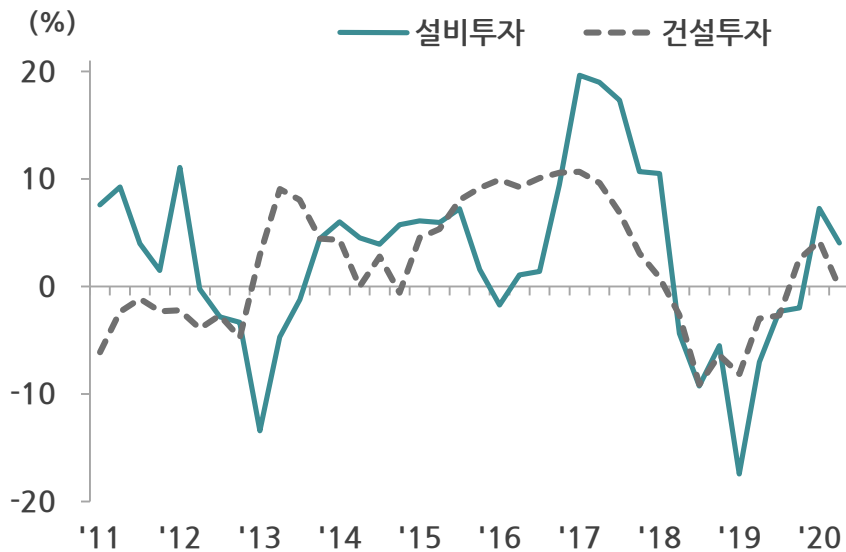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2) 국내경제: 투자, 수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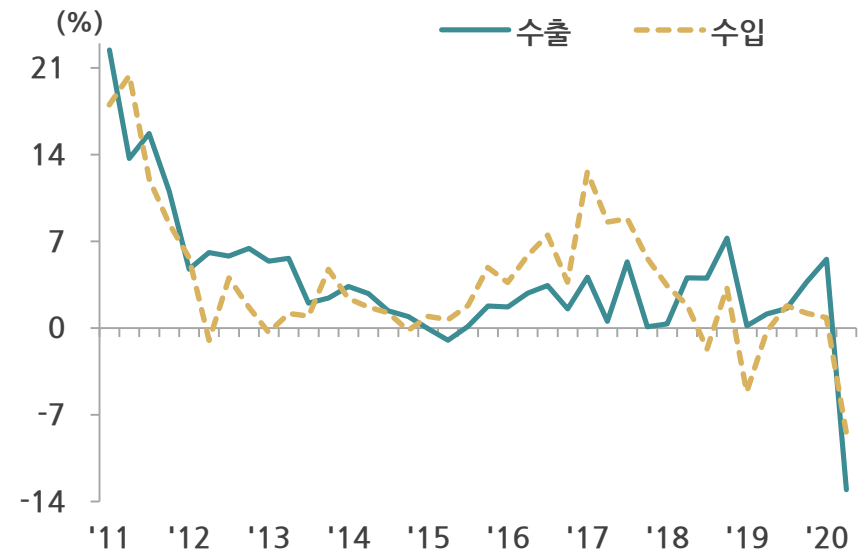
- 설비투자는 2019년 급감한 데 따른 기저효과와 반도체수요 회복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임
- 2020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교역량 감소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함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증가율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재화 수출입 증가율



주: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시장: 금리 및 통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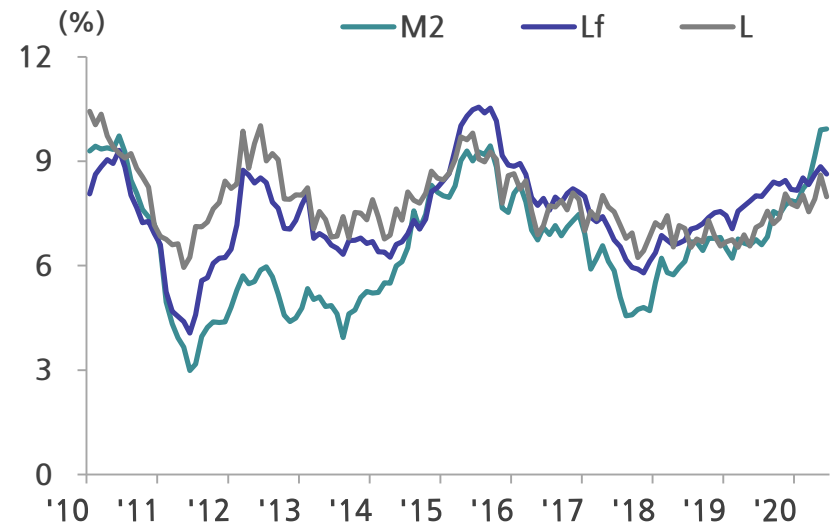
-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 수준으로 인하함
- 저금리 환경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은 크게 증가함
 - 통화량은 2018년 이후 소폭 증가해 왔으나, 2020년 이후 증가세가 확대됨

기준금리 및 국고채 금리 추이



주: 국채(10년) 금리, 2020년 9월 기준
자료: Bloomberg

통화량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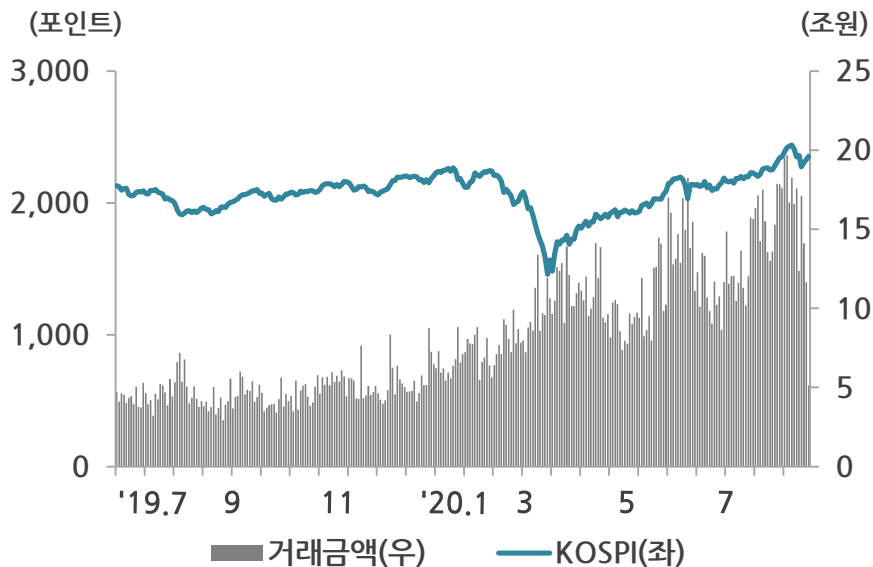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금융시장: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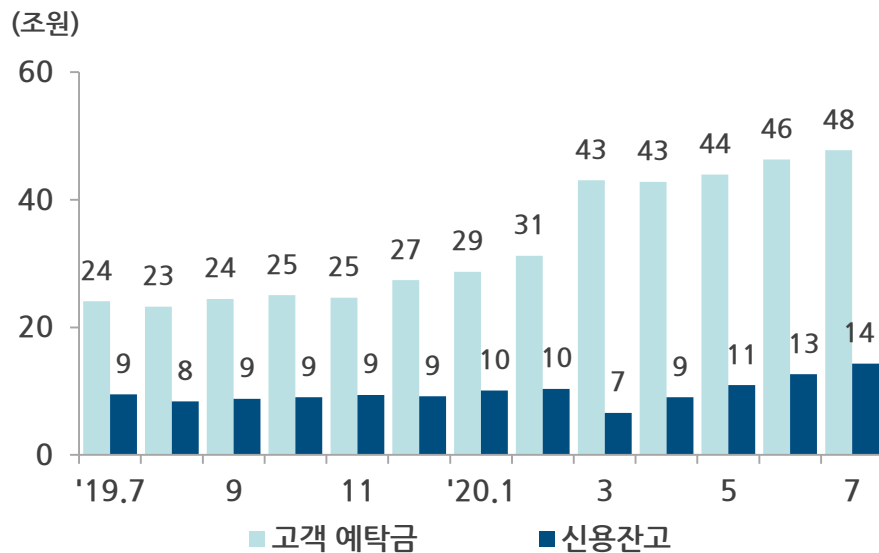
- 2020년 상반기 코스피 지수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최고조에 달했던 3월 1,400포인트 대까지 급락하였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급반등함
- 풍부한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주식시장 고객예탁금은 2019년의 두 배 가량 급증함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및 신용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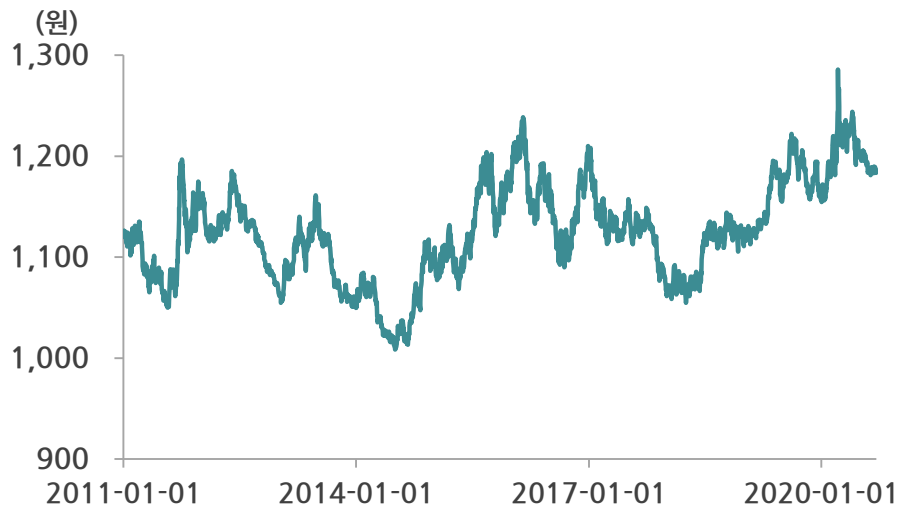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3) 금융시장: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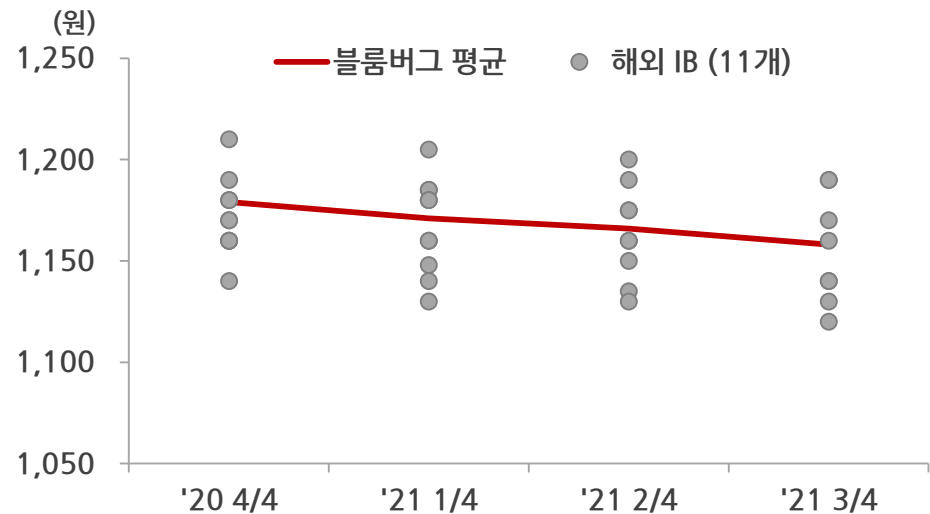
- 원/달러 환율은 3월 주식시장 급락 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급등세를 보였으나, 점차 안정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함
-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1년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인 하향세를 전망함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주: 2020년 9월 기준
자료: Bloomberg

4) 2021년 국내경제 전망

-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2021년 우리나라 GDP가 3% 내외의 제한적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함
 - 2021년 민간소비는 2020년 4% 감소에 미치지 못하는 3% 수준의 소폭 회복이 전망됨
 - 설비투자과 수출입은 4~6%의 회복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부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함

국내외 주요기관 2021년 경제전망

(전년 대비, %)

구분	2020				2021			
	한국은행	KDI	OECD	IMF	한국은행	KDI	OECD	IMF
국내총생산	-1.3	-1.1	-1.0	-2.1	2.8	3.5	3.1	3.0
민간소비	-3.9	-4.6	-	-	3.8	2.7	-	-
설비투자	2.6	4.2	-	-	6.2	4.8	-	-
건설투자	-0.7	1.1	-	-	-0.4	3.1	-	-
상품수출	-4.5	-2.5	-	-	4.8	3.7	-	-
상품수입	-1.8	-0.7	-	-	5.9	4.6	-	-

자료: 한국은행(20. 8), KDI(20. 9), OECD(20. 9), IMF(20.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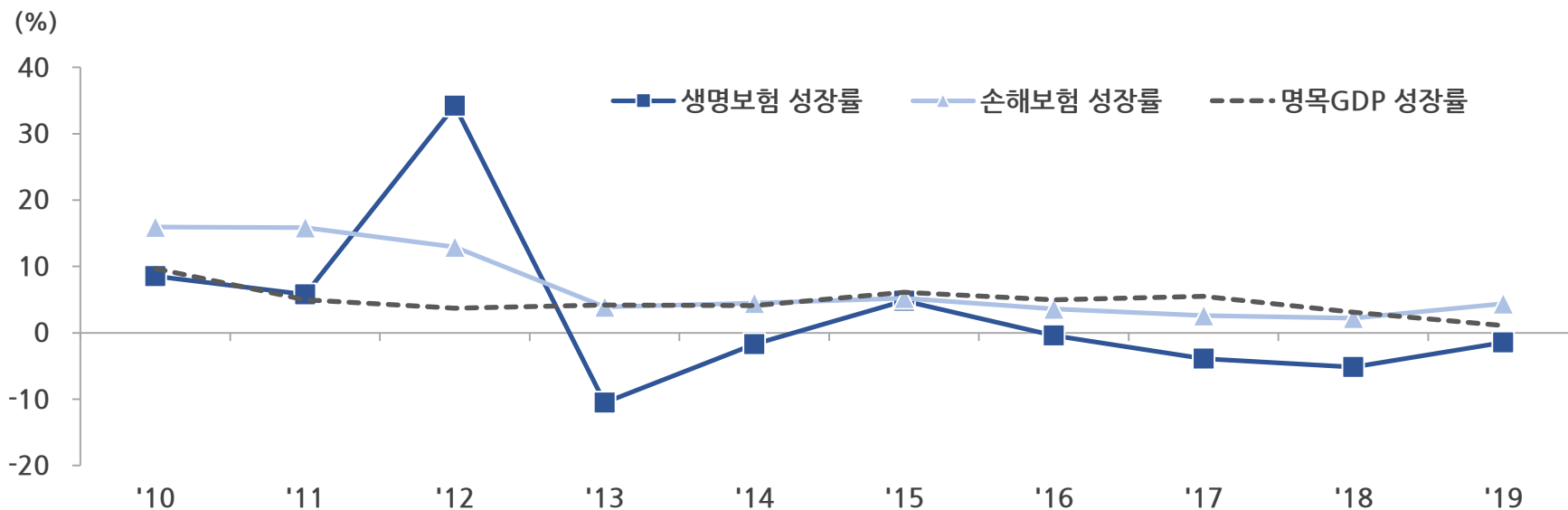
2. 보험산업 주요 동향

- 1) 보험산업 성장성 추이
- 2) 코로나19 확산과 보험산업
- 3) 2020년 상반기 성장성
- 4)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 5)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 6) 2020년 상반기 수익성
- 7)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1) 보험산업 성장성 추이(퇴직연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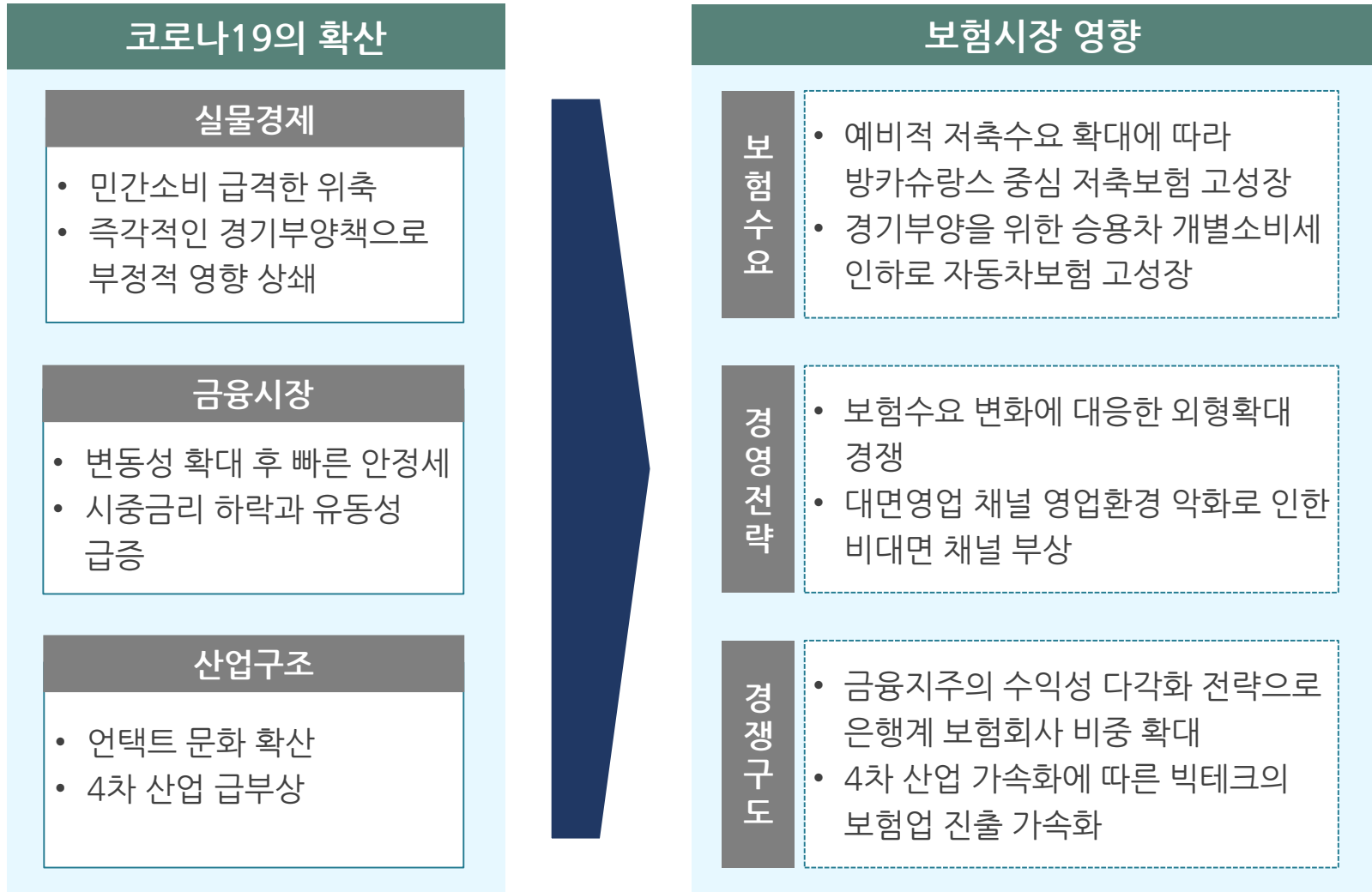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성장성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음
 - 2016~2018년 보험산업 성장률은 명목경제성장률을 하회함
 - 생명보험은 2016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저성장·저금리 심화는 보험산업의 장기적 성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보험산업 장기 성장성 추이 (2010~2019년)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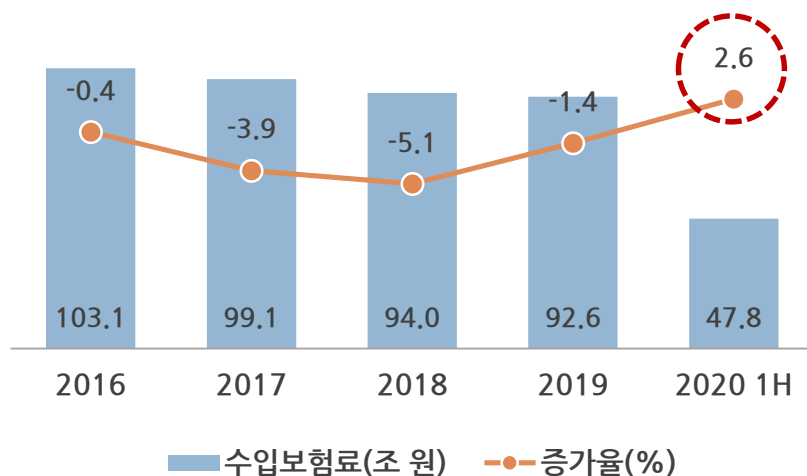
2) 코로나19 확산과 보험산업



3) 2020년 상반기 성장성(퇴직연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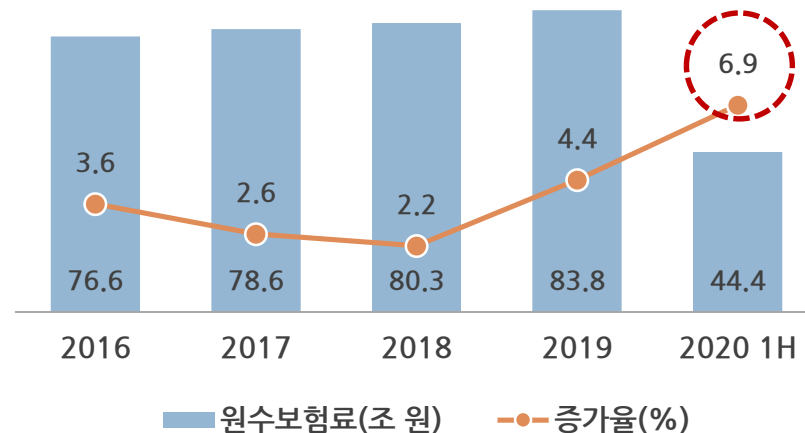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이례적인 높은 성장세를 보임
 -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각각 2.6%, 6.9% 성장함
- 생명보험은 4년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하였고, 손해보험은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 생명보험 종목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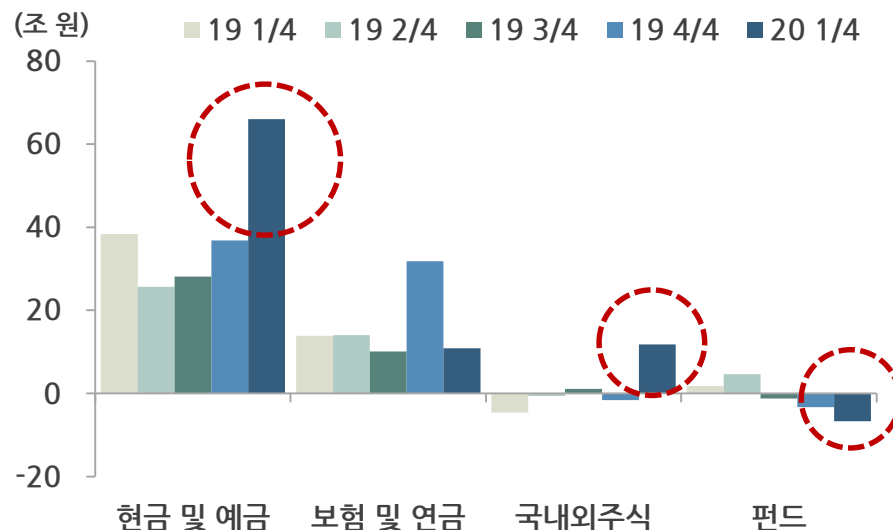
- 생명보험 종목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저축보험이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11.0%, 19.3% 고성장하며 생명보험 전체 성장을 견인함
- 저금리 환경에서 현금 및 예금의 대폭 증가는 경기불확실성 우려에 따른 예비적 저축 증가로 해석됨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증가율(%)	'19 2/4	3/4	4/4	'20 1/4	2/4
사망	4.5	4.4	4.5	4.8	3.6
저축	-5.4	-6.0	-13.4	11.0	19.3
연금	-1.6	-3.6	-4.7	-7.3	4.0
변액	-4.5	-2.8	-4.0	-2.3	-11.3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가계 금융상품 거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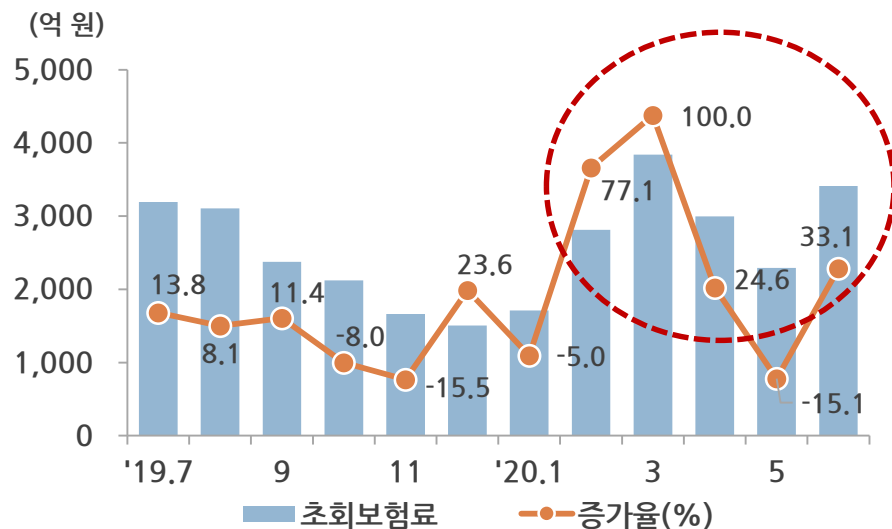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4-1) 저축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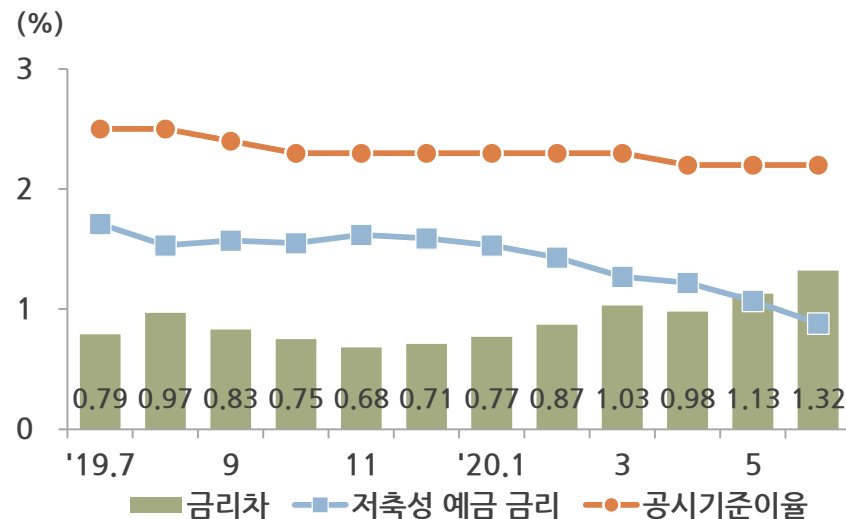
- 저축보험은 2월 이후 시중금리 하락으로 상대적인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고성장을 지속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로 2월 이후 시중금리는 급격히 하락함
 - 저축보험은 예적금 대비 상대적인 금리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급증한 예적금 수요의 일부를 흡수함

저축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예적금이율 및 공시기준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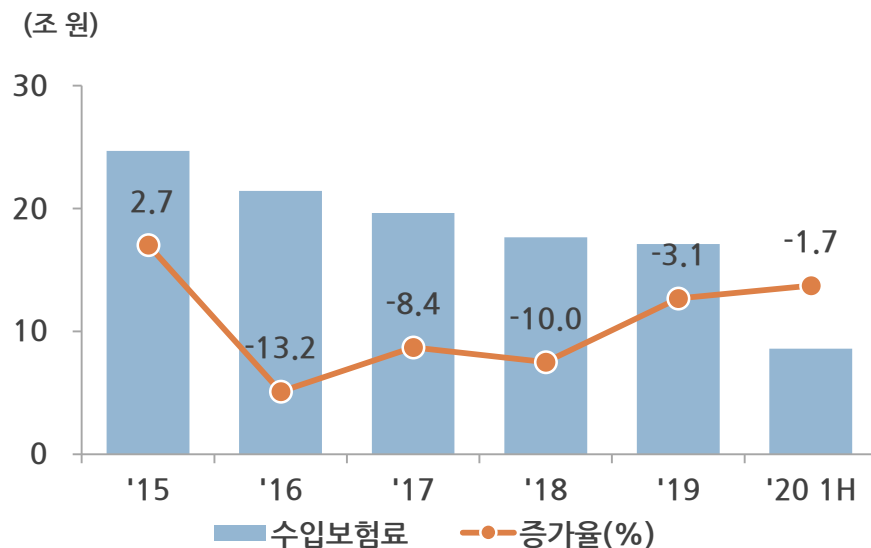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2) 연금보험

- 연금보험은 2020년 상반기 수입보험료가 감소하였고, 급증한 유동성이 연금수요로 유입되지 않음
 - 이는 연금보험이 단기저축인 예적금을 대체하기 어려운 장기 노후소득보장 상품이기 때문임
- 한편, 노후소득 보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시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됨
 -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장기저축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연금보험 수입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연금보험 부진의 원인

공급측면

-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하락
- 장수리스크 요구자본 부담
- 판매 수수료 조정에 따른 판매 유인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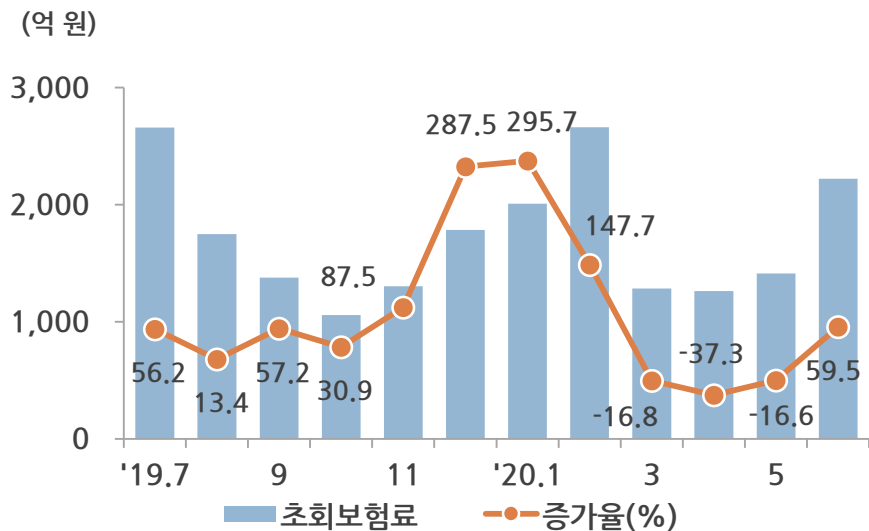
수요측면

- 비과세 혜택 한도 축소
- IRP, TDF 등 대체상품 확대

4-3) 변액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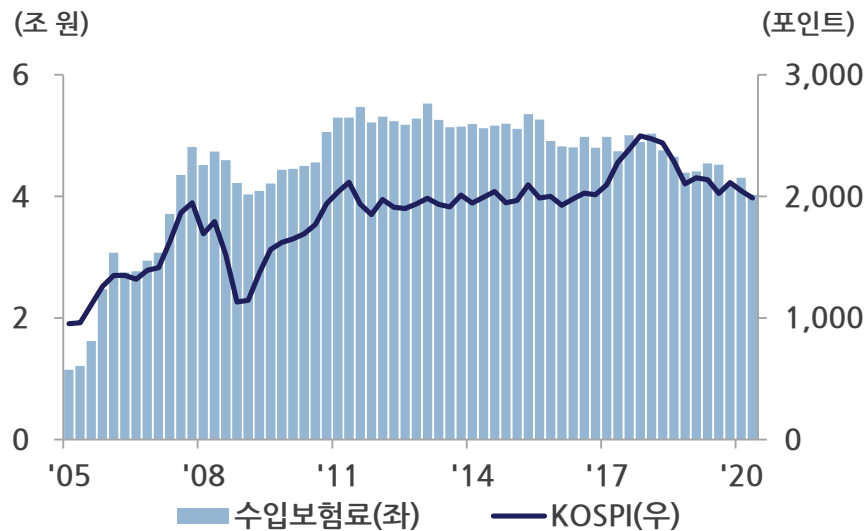
- 변액보험은 2020년 3월 이후 주식시장의 급반등에도 불구하고 2/4분기 초회보험료가 감소함
 - 개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펀드, 변액보험과 같은 간접투자 상품은 부진함
 - 변액보험 판매 비중이 높은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 위축 영향도 작용함
-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주식시장 민감도가 둔화되면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함

변액보험 월별 초회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주가지수와 변액보험 수입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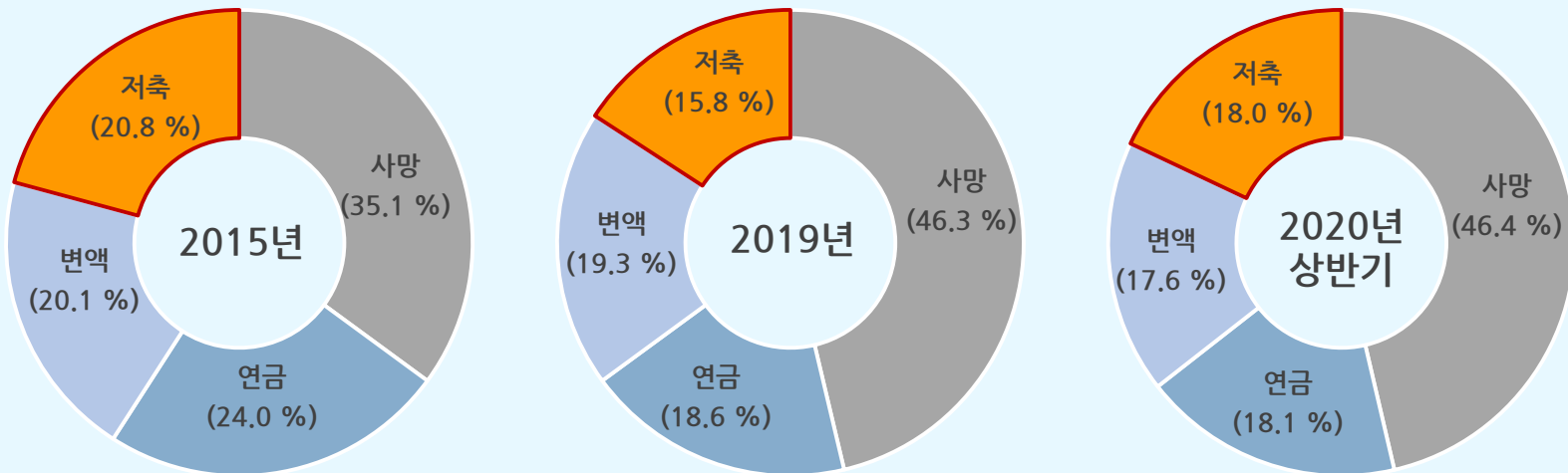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4-4) 생명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 생명보험산업은 저금리 환경과 제도변화에 대응하여 저축보험 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함
 - 저축보험은 저금리 환경에서 수익성이 낮고, 새로운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자본변동성 부담이 큼
 - 2015년 20.8%에 달하던 저축보험 비중은 2019년 15.8%까지 감소함
- 2020년 상반기 저축보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지속 확대 시 이차역마진 심화가 우려됨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변화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5) 손해보험 종목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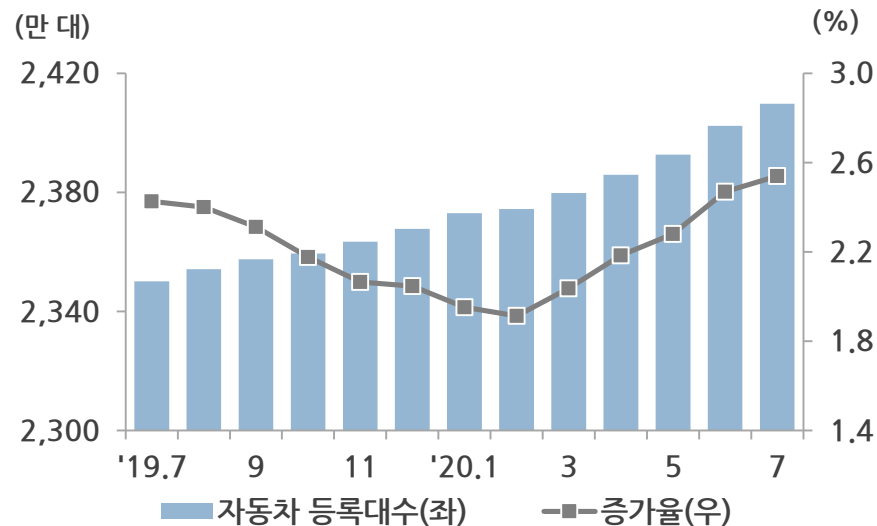
- 손해보험 종목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이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각각 9.6%, 13.4% 고성장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함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은 3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증가율(%)	'19 2/4	3/4	4/4	'20 1/4	2/4
장기보장	7.5	8.1	8.1	8.5	7.2
장기저축	-14.9	-14.5	-16.4	-17.2	-18.0
자동차	4.0	7.8	7.3	9.6	13.4
일반	6.6	7.7	-1.8	16.6	6.7

주: 장기저축에는 개인연금이 포함됨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동차 등록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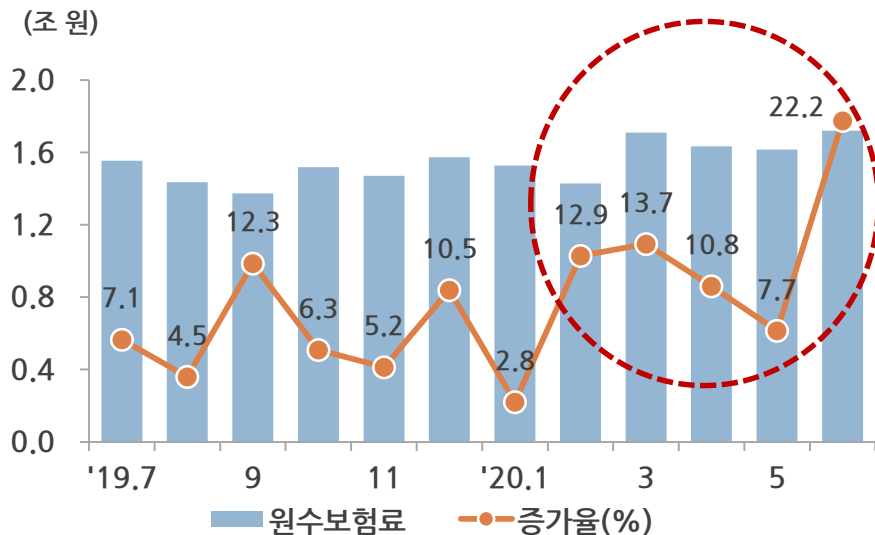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5-1) 자동차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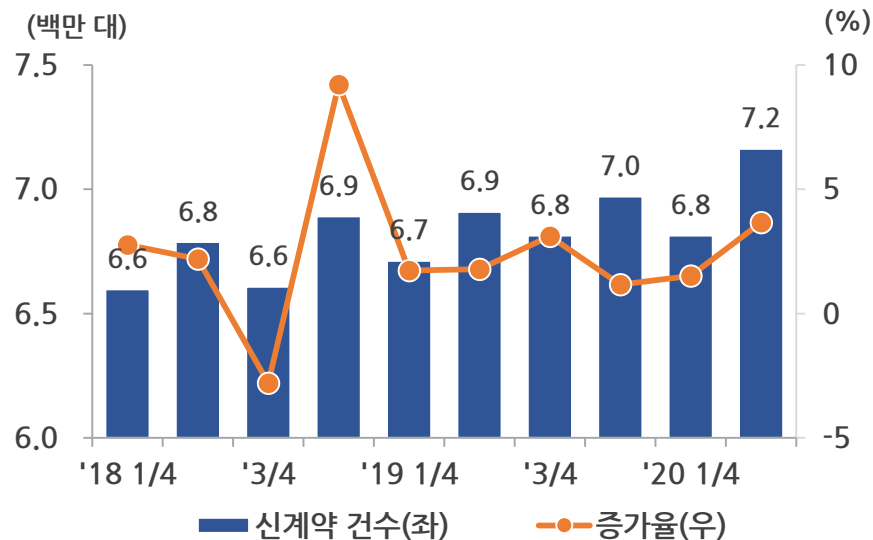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와 2020년 2월 보험료 인상 효과로 고성장 중이며, 특히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종료를 앞둔 6월에는 22.2% 급증함
 -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2020년 2월 3.5% 수준의 요율조정이 이루어짐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효과로 2020년 2/4분기 자동차 책임보험 신계약 건수는 대폭 증가함

자동차보험 월별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자동차 책임보험 신계약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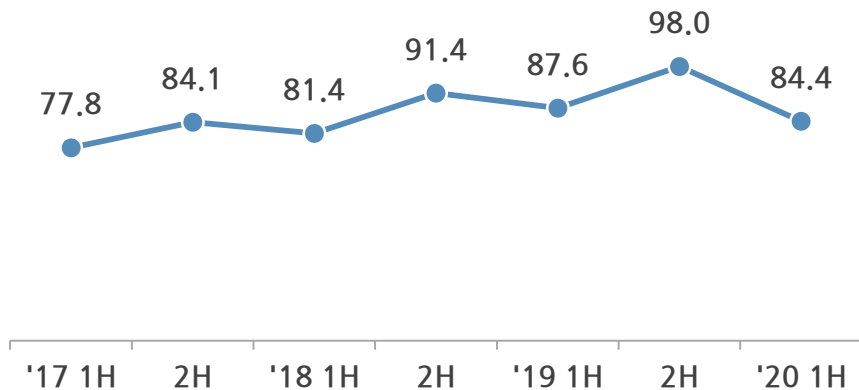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5-2) 손해율

-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높은 손해율은 손해보험 수익성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행 감소, 보험료 증가로 개선됨
 - 2020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4%로 2019년 하반기에 비해 13.6%p 하락함
-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이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지속함

자동차보험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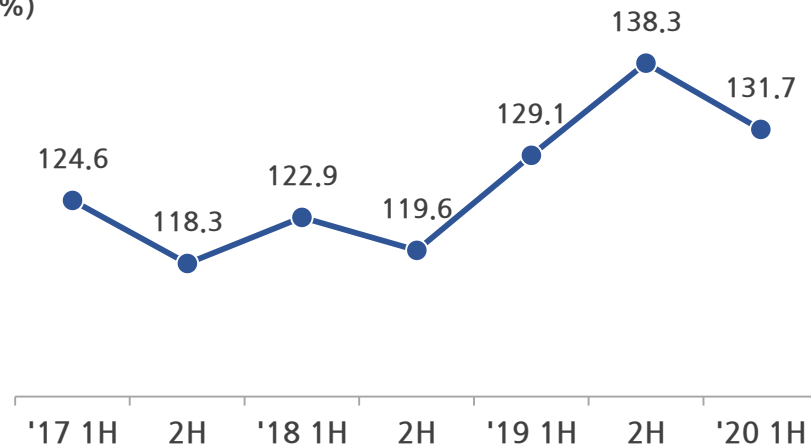
(%)



주: 손해율은 경과손해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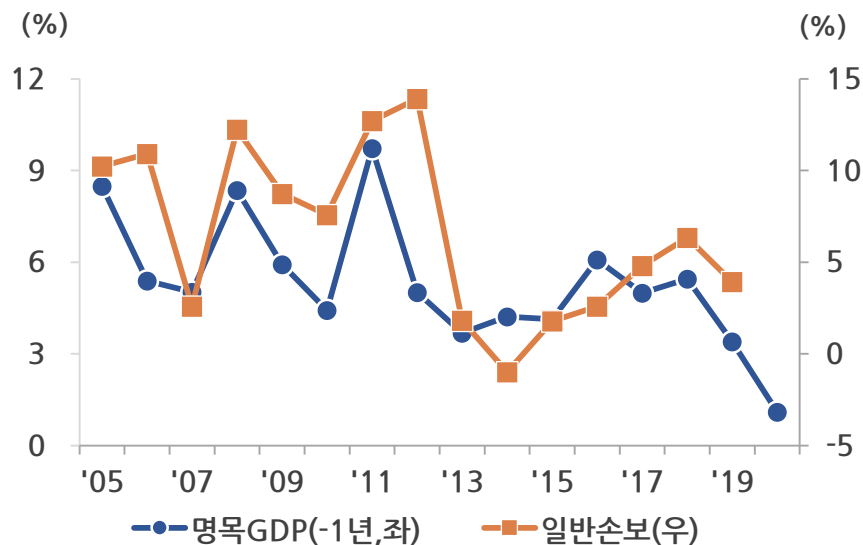


주: 손해율은 위험손해율임
자료: 정성희(2020), 「최근 실손의료보험 청구 실태와 시사점」, 보험연구원

5-3) 일반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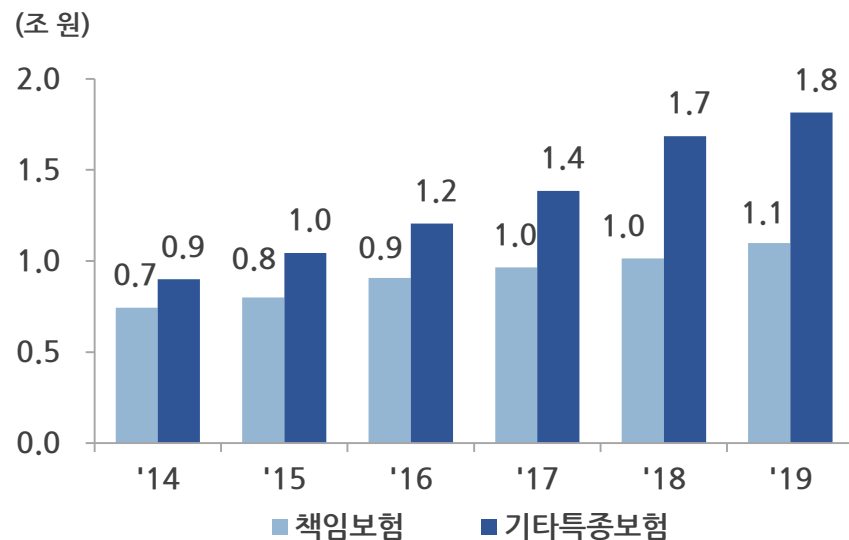
- 2020년 상반기 일반손해보험의 성장도 두드러짐(1/4분기, 2/4분기 각각 16.6%, 6.7% 성장)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GDP 성장률에 민감하지만 이례적으로 고성장함
-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신규위험 담보확대로 배상책임보험, 기타특종보험이 성장을 주도함

일반손해보험과 명목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책임보험 및 기타특종보험 원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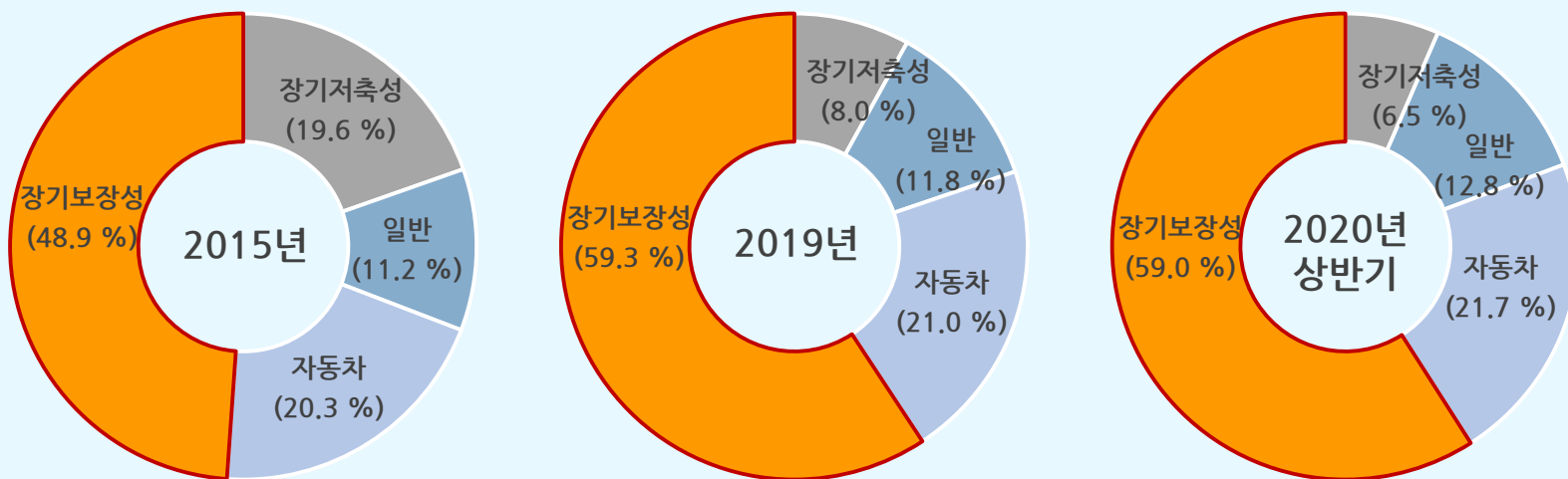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5-4) 손해보험 상품 포트폴리오

- 손해보험산업은 장기보장성보험, 일반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전환 중임
 - 장기보장성보험과 일반보험 비중은 2015년 각각 48.9%, 11.2%에서 2020년 상반기 각각 59.0%, 12.8%까지 확대됨
- 건강보험 과열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있으나, 새로운 위험에 대한 공사협력 모델 확대도 기대됨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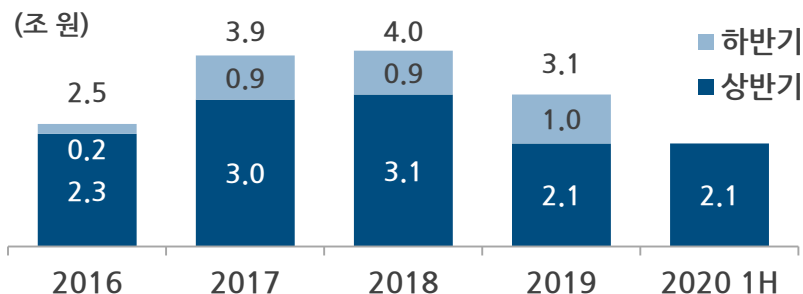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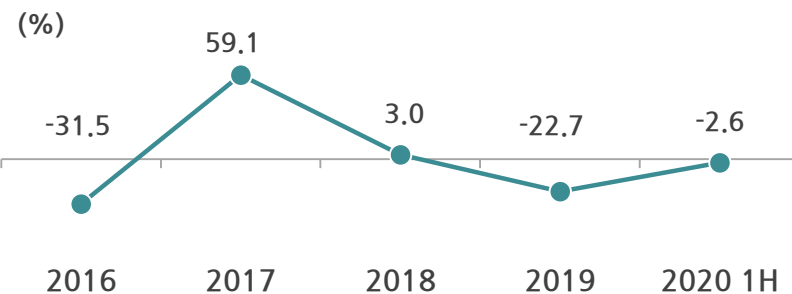
6) 2020년 상반기 수익성: 당기순이익

-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2019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함
-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지속 중이며, 2020년 상반기 증가하였으나 2018년 상반기 수준을 하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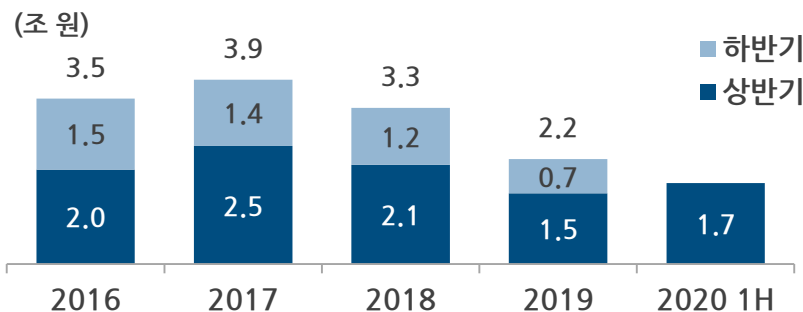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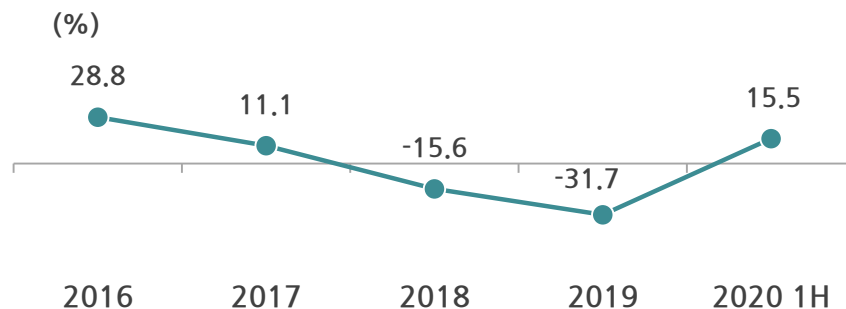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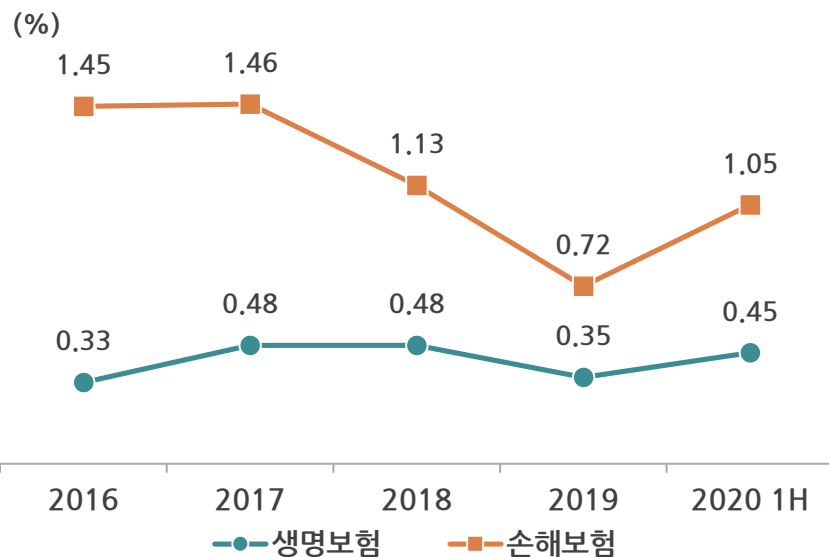


주: 2020년 상반기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수치임

6) 2020년 상반기 수익성: ROA, 보험산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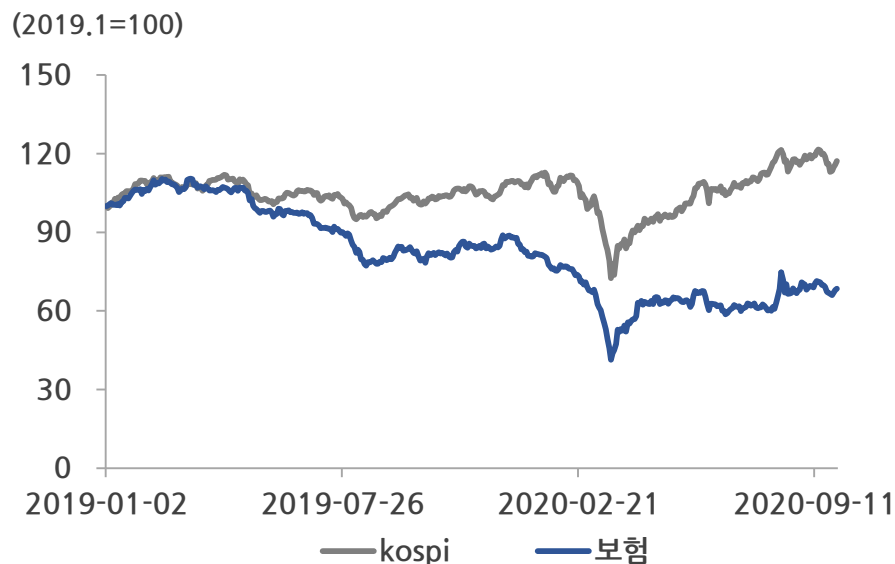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ROA는 2018년과 2019년 하락한 후, 2020년 상반기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 코스피지수 대비 보험산업지수의 낮은 성과는 보험산업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시각을 반영함

보험산업 ROA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상장 보험회사 주가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7)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 2020년 상반기 보험산업은 코로나19 확산 후 정책효과에 힘입어 고성장하였음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단기 저축 수요 이상의 구조적 보험수요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한시적인 경기부양책에 의한 자동차보험 고성장은 지속성이 낮음
-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상반기 수익성 또한 소폭 개선되었지만 자산운용 여건이 악화되고, 높은 손해율 지속 중임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수익성 개선

성장성 지속 의문

- 정부 경기부양책 효과 소멸
- 대면판매 채널의 영업 환경 악화 지속
- 소비여력 감소에 따른 보험수요 위축
- 저축성보험 지속적 확대 부담

수익성 악화 우려

- 저금리 지속으로 자산운용 여건 악화
- 저축성보험 확대에 이차역마진 심화 가능성
- 실손의료보험 등 높은 손해율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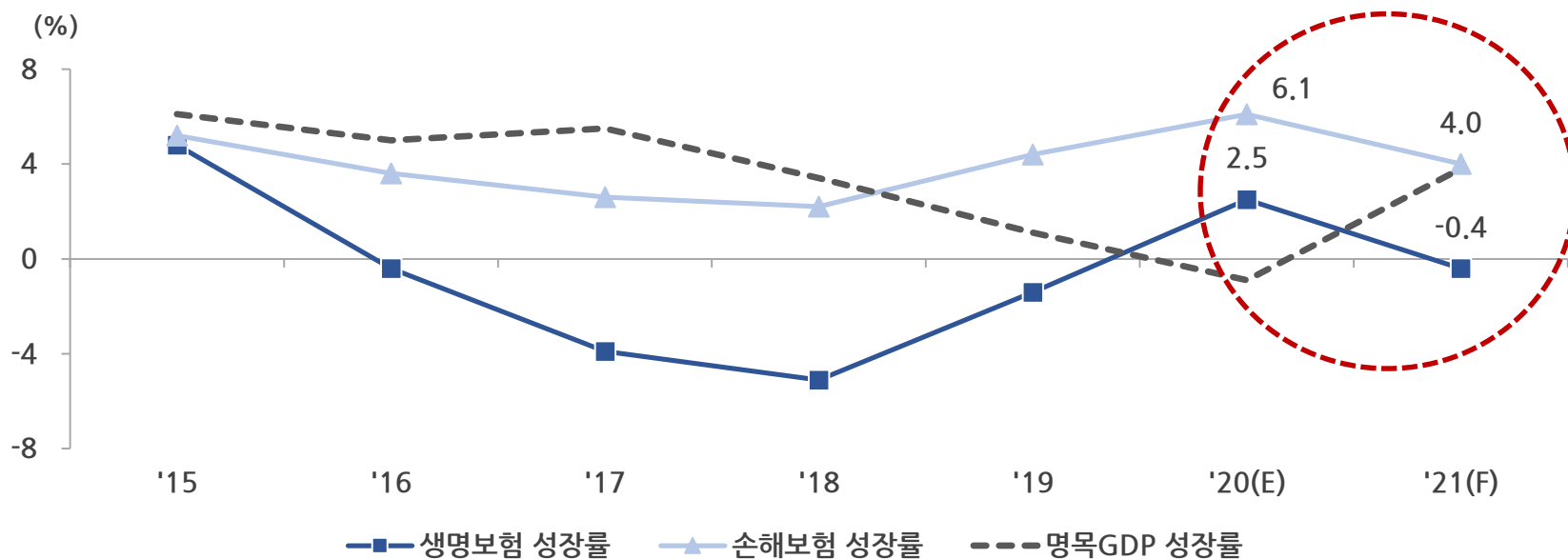
3.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전망

- 1) 2021년 수입보험료 전망 개요
- 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4) 보험업권 퇴직연금

1) 2021년 수입보험료 전망 개요(퇴직연금 제외)

2020년 일시적 고성장 후, 2021년 저성장 추세 회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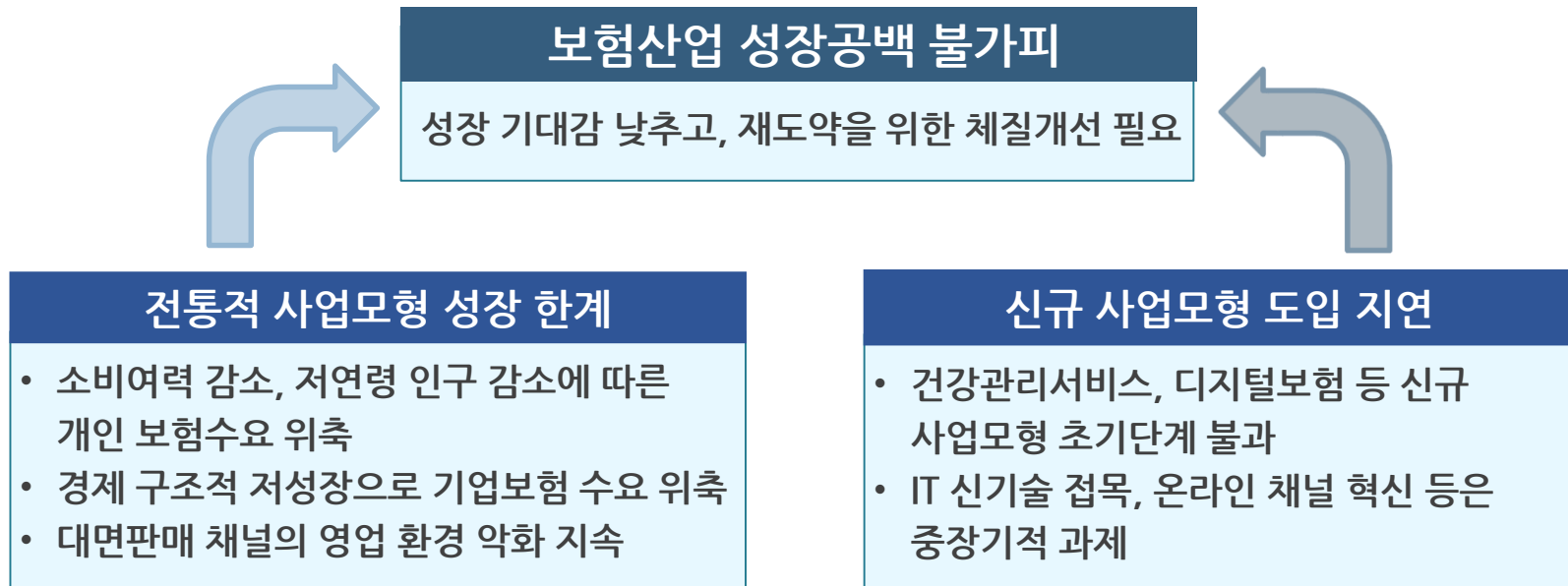
- 2020년 명목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보험산업의 고성장은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큼
- 2021년 보험산업은 정책효과 소멸, 제한적 경기회복으로 저성장 추세 회귀 전망됨
- 생명보험은 2020년 2.5%, 2021년 -0.4%로 역성장 전환, 손해보험은 2020년 6.1%, 2021년 4.0%로 성장둔화가 전망됨



자료: 한국은행,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1) 2021년 수입보험료 전망 개요

- 당분간 보험산업의 성장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보험산업은 사업모형 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성장공백에 직면함
 - 전통적 사업모형은 성장 한계, 전통적 사업모형을 대체할 신규 사업모형의 도입 지연
- 보험산업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재도약을 위한 체질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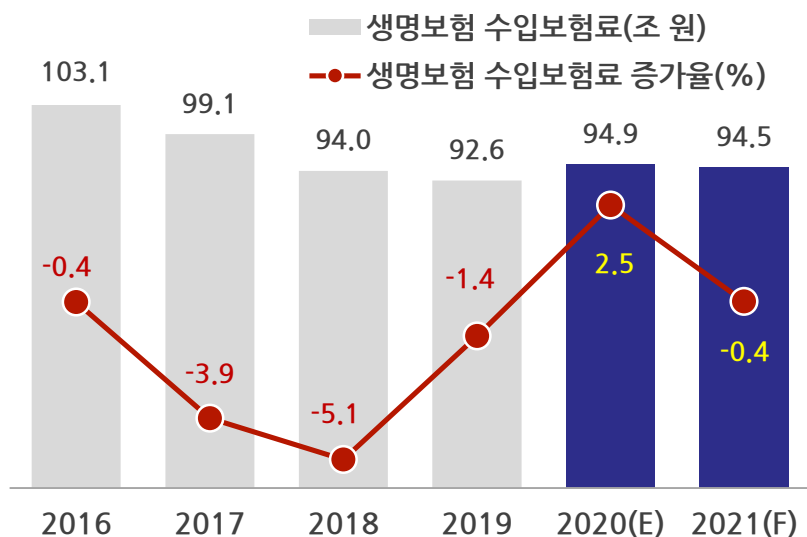


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퇴직연금 제외)

• 2021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0.4% 감소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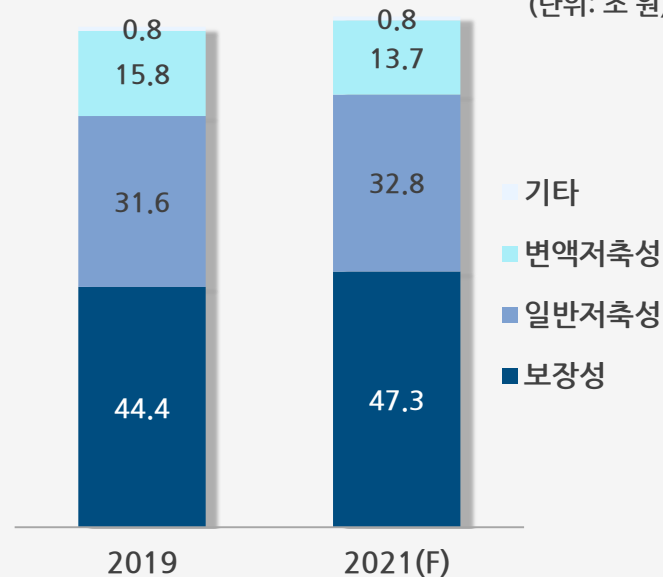
- 사망보험은 수요감소, 판매규제 강화 등에 의해 성장세 둔화 전망
-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 전망
- 변액저축성보험은 초회보험료 증가가 예상되나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투자 선호 현상으로 수입보험료 감소 전망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생명보험 종목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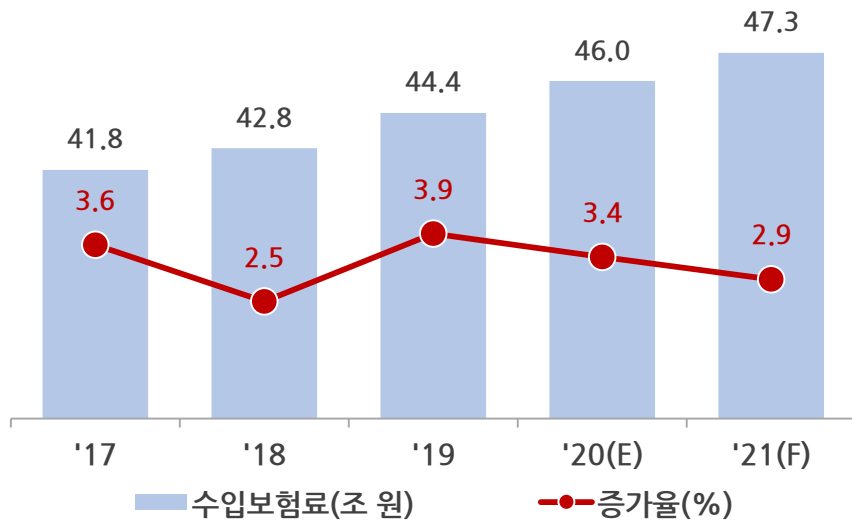
(단위: 조 원)



2) 생명보험 : 사망보험 (변액사망보험 포함)

- 사망보험은 소비심리 악화, 대면채널 영업환경 개선 지연, 판매규제 강화 등으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민간소비의 제한적 회복으로 종신보험 수요 둔화, 코로나19 지속으로 설계사 및 대리점 영업환경 개선이 어려움
- 저해지·무해지 상품 판매규제, 수수료 제도 변화, 2020년 절판효과 소멸에 따른 기저효과 발생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장 관심 확대
- 제도변화 대비 보장성보험 확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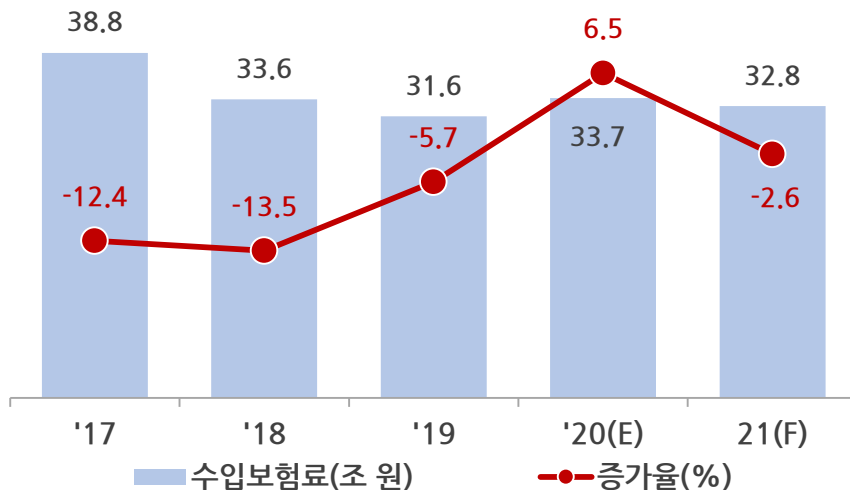
▼ 감소요인

- 사망보험 시장 포화
- 기대여명 상승으로 사망보험 니즈 감소
- 보장성보험 판매규제 강화

2) 생명보험: 일반저축성보험

- 일반저축성보험은 연금보험의 감소세 지속과 저축보험의 기저효과로 2.6% 감소할 전망이다
 - 연금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들의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금보험은 감소세를 지속
 - 저축보험은 단기 유동성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차역마진 확대 우려로 추가적 규모확대 제한적이며 기저효과로 인한 감소 전망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노후소득보장 니즈 확대로 연금수요 증가
- 상대적 금리 경쟁력 부각에 따른 예·적금 대체
- 단기적 외형확대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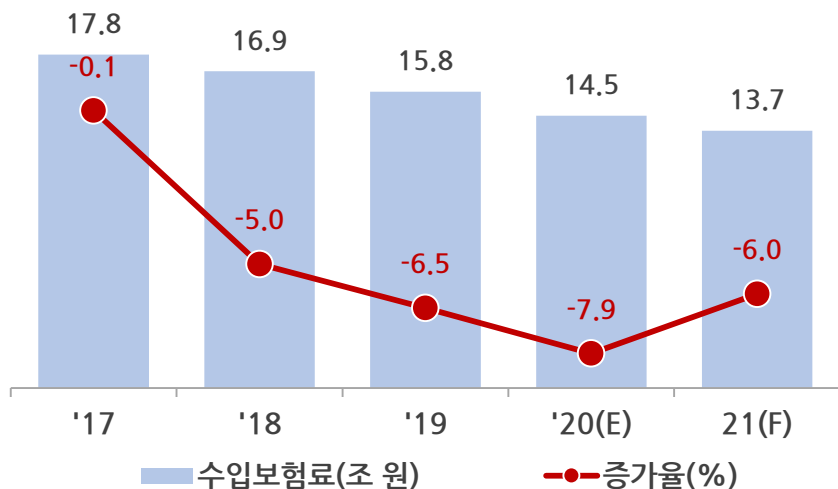
▼ 감소요인

-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
- 신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 시 자본 변동성 확대 우려
- IRP, TDF펀드 등 대체 연금시장 확대

2) 생명보험: 변액저축성보험

- 변액저축성보험은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초회보험료 유입이 기대되나, 계속보험료 감소로 인해 수입보험료는 6.0% 감소 전망
 - 금융시장 안정에도 투자자들의 단기 직접투자 선호에 따라 초회보험료의 대폭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대면채널 영업환경 악화, 방카슈랑스 채널의 변액보험 판매 위축 등 판매채널의 부정적 여건 지속

수입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2021년 경기 회복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 저금리 환경으로 인한 수익추구 수요
- 생명보험 대체 성장동력으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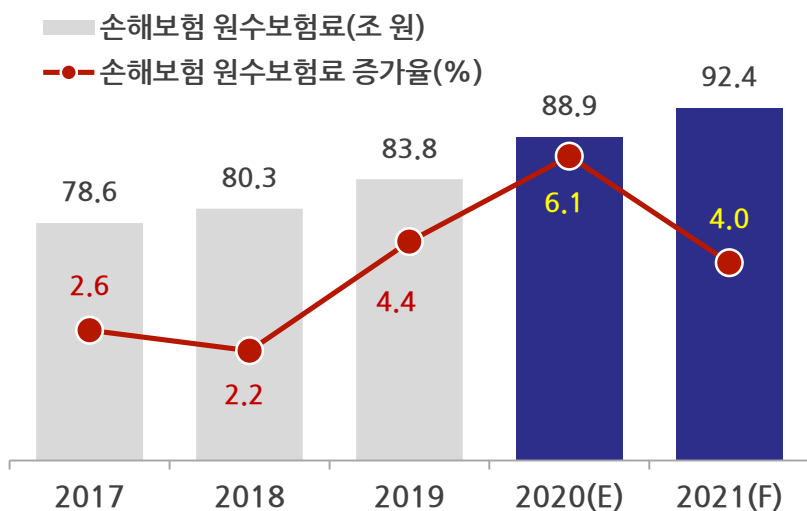
▼ 감소요인

- 개인의 직접 투자 및 단기 투자 선호
- 방카슈랑스 채널의 위축
- 미약한 경기회복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퇴직연금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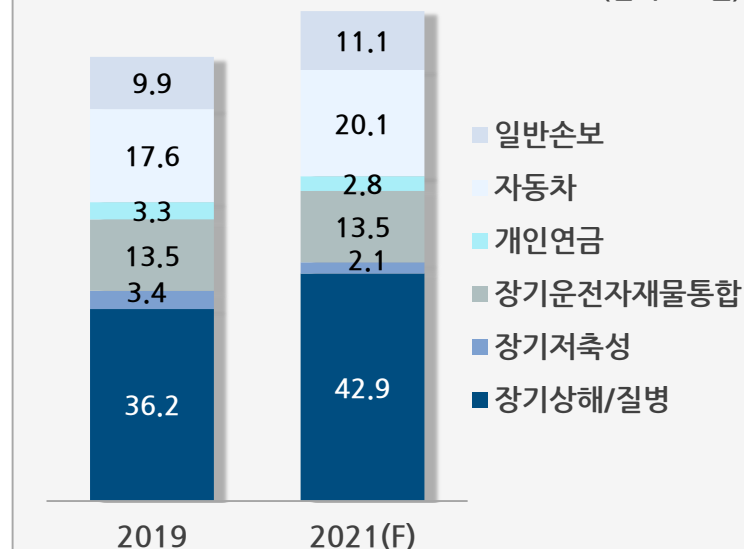
- 2021년 손해보험 원수보험료(퇴직연금 제외)는 4.0% 증가할 전망이다
 - 장기보험은 질병·상해, 운전자보험의 성장 지속이 전망되나 저축보험은 부진 지속 전망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 효과와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 소멸로 성장세 둔화 전망
 - 일반보험은 건설투자 회복 지연에도 신규 리스크 담보 중심으로 양호한 성장 유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와 증가율



손해보험 종목별 규모

(단위: 조 원)



3) 손해보험: 장기 보장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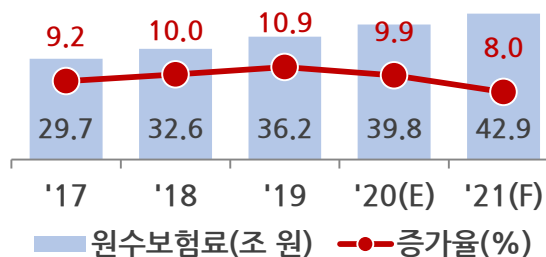
- 장기 보장성보험 중 질병·상해보험 성장세는 8.0%로 소폭 둔화, 운전자·재물 등 기타 보장성보험은 0.2% 성장이 전망됨
- 질병·상해보험은 보장확대 경쟁이 완화되면서 초회보험료 유입 둔화,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이 예상됨
-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로 고성장 예상, 재물보험은 특별한 성장요인이 없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원수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감소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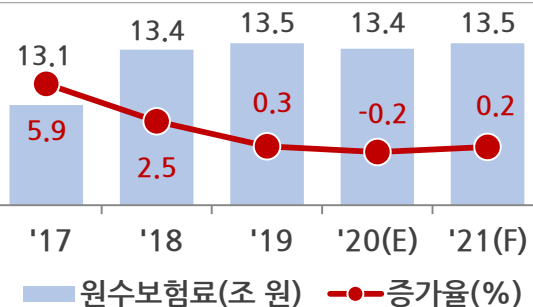
1 질병·상해



- 유병력자를 위한 간편심사보험 확대
-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증가
- 판매 경쟁

- 실손의료보험 시장 포화
- 저금리 지속에 의한 예정이율 인하

2 운전자·재물·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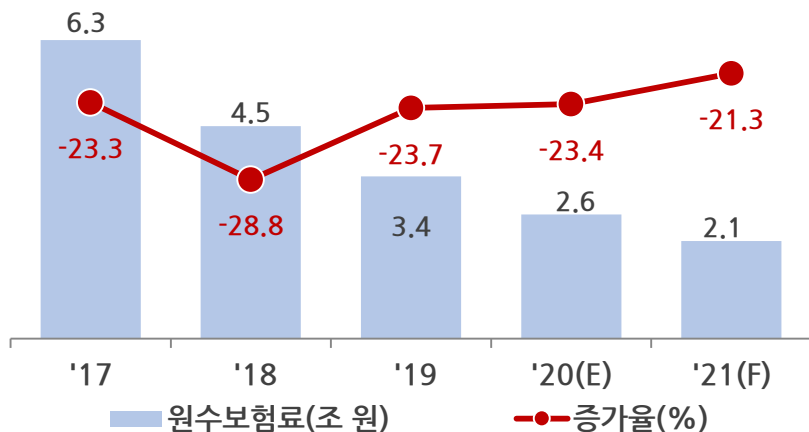
- 운전자 배상책임 강화

-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 하락
- 저금리 지속에 의한 예정이율 인하

3) 손해보험: 장기 저축성보험

- 장기 저축성보험 원수보험료는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21.3% 감소 전망
 - 손해보험회사의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저축성보험 규모는 2015년 이후 대폭 감소
 - 다만, 방카슈랑스 채널의 저축보험 확대 영향으로 일부 회사의 보험료 급증 가능성도 상존

원수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방카슈랑스 저축보험 수요 확대
- 일부 회사의 외형확대 전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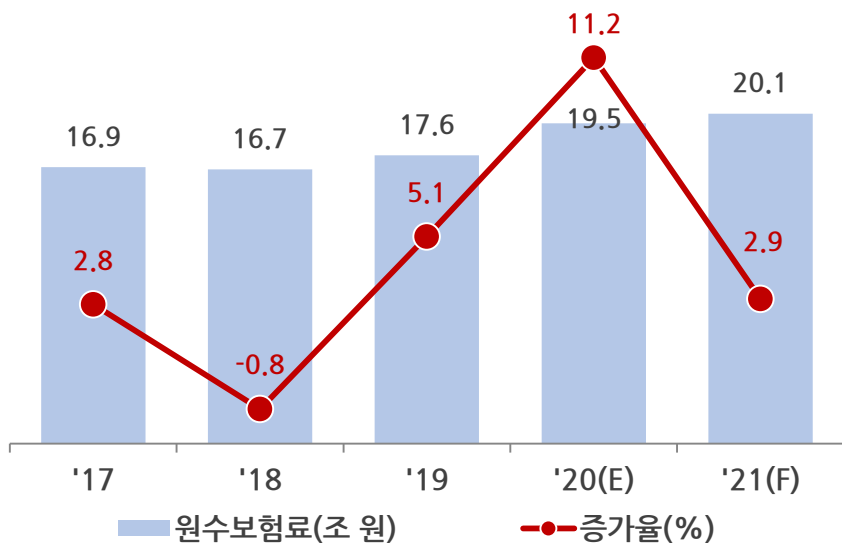
▼ 감소요인

- 보장성보험 중심 포트폴리오 전략
- 저금리에 따른 자산운용 제약

3)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효과 소멸,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로 2.9%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한시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 둔화가 전망됨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및 운행거리 연동 보험 확대 등도 보험료 감소 요인임

원수보험료 전망



▲ 증가요인

- 고가 차량, 외산 차량 증가
- 자동차 등록대수 지속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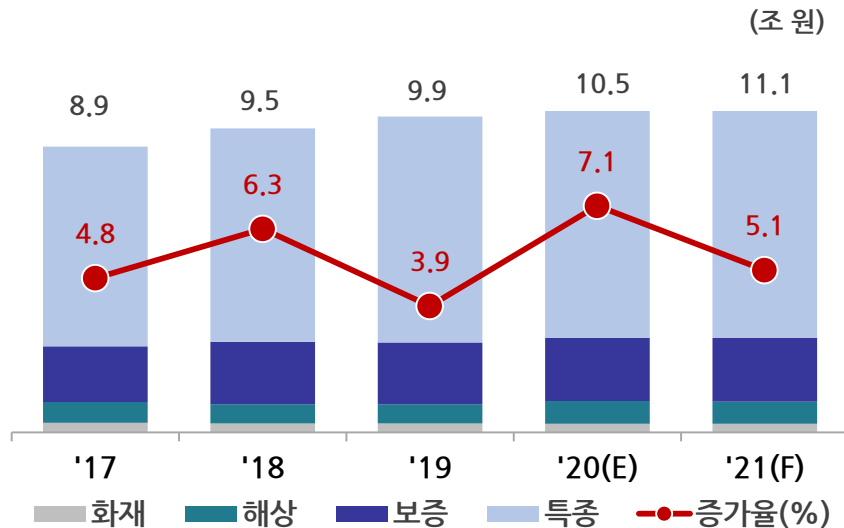
▼ 감소요인

-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 채널 확대
- 운행거리 연동 보험상품 확대

3) 손해보험: 일반보험

- 일반보험은 해상, 보증보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특종보험의 고성장으로 5.1%의 양호한 성장이 전망됨
 - 보증보험은 건설투자의 회복 지연으로 1.2% 성장이 전망됨
 - 해상보험은 위성보험의 기저효과, 수출입 물동량 감소, 조선수주 감소 등으로 2.3% 감소 전망됨
 - 특종보험은 책임보험 확대, 농산물재해보험, 휴대폰보험 등 신규 담보 확대로 6.9% 성장

원수보험료 전망



종목별 원수보험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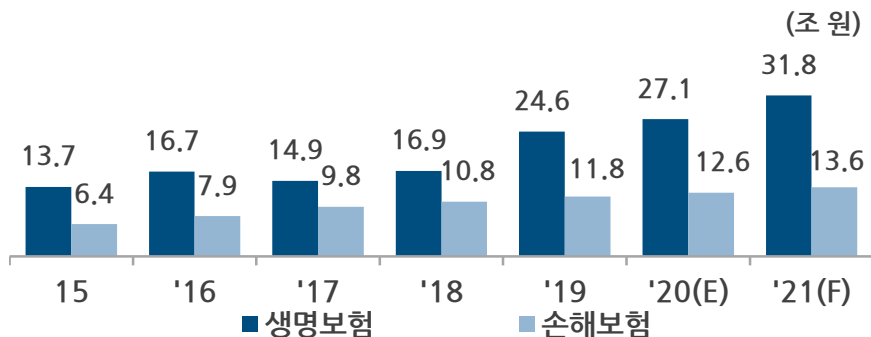
증가율(%)	'17	'18	'19	'20(E)	'21(F)
화재	-1.5	-7.2	-1.2	-1.0	-0.8
해상	5.9	-7.6	0.8	17.7	-2.3
보증	9.6	12.1	-1.0	1.7	1.2
특종	3.7	6.8	5.9	8.0	6.9

4) 보험업권 퇴직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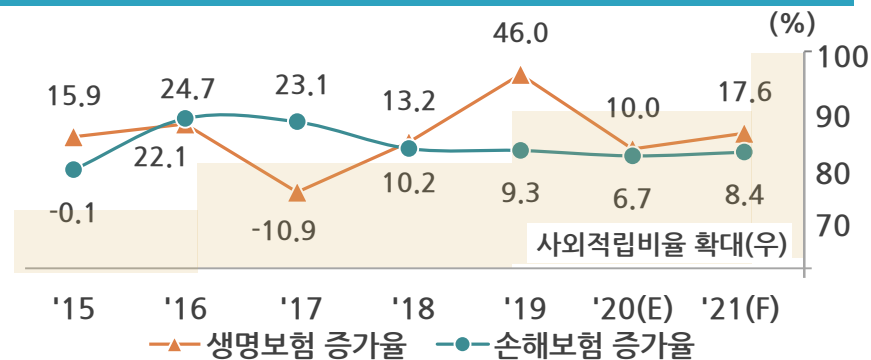
• 퇴직연금 보험료는 생명보험 17.6%, 손해보험 8.4% 증가할 전망이다

- 생명보험은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확대 효과가 크며, 손해보험은 계속보험료 중심의 성장이 예상됨
- IRP 시장 확대는 긍정적인 요인이나,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 등은 부정적임
-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보험료가 12월 일시적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전망에 불확실성이 큼

퇴직연금 보험료 전망



사외적립비율 확대 및 보험료 증가율



▲ 증가요인

- DB형 사외적립비율 확대(2021년 말 100%)
- IRP시장 확대 지속

▼ 감소요인

- 타금융권과의 경쟁 심화
- 적립금에 대한 요구자본 부담에 따른 소극적인 판매 전략
- 경기둔화에 따른 신규고용 감소, 임금상승률 둔화

[참고] 생명보험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E)		202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생명보험 전체	94.0	-5.1	92.6	-1.4	94.9	2.5	94.5	-0.4
보장성보험	42.8	2.5	44.4	3.9	46.0	3.4	47.3	2.9
저축성보험	50.4	-10.8	47.4	-6.0	48.2	1.7	46.5	-3.6
일반저축성보험	33.6	-13.5	31.6	-5.7	33.7	6.5	32.8	-2.6
변액저축성보험	16.9	-5.0	15.8	-6.5	14.5	-7.9	13.7	-6.0
기타(일반단체)	0.8	-0.4	0.8	0.6	0.8	-1.7	0.8	0.2
퇴직연금	16.9	13.2	24.6	46.0	27.1	10.0	31.8	17.6
퇴직연금 포함	110.8	-2.7	117.3	5.8	122.0	4.1	126.3	3.5

[참고] 손해보험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8		2019		2020(E)		2021(F)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보험료	증가율
손해보험 전체	80.3	2.2	83.8	4.4	88.9	6.1	92.4	4.0
장기손해보험	50.6	3.0	53.1	5.0	55.8	5.2	58.5	4.7
질병 및 상해	32.6	10.0	36.2	10.9	39.8	9.9	42.9	8.0
저축성	4.5	-28.8	3.4	-23.7	2.6	-23.4	2.1	-21.3
운전자·재물 등	13.4	2.5	13.5	0.3	13.4	-0.2	13.5	0.2
개인연금	3.5	-5.0	3.3	-6.4	3.0	-9.0	2.8	-7.3
자동차보험	16.7	-0.8	17.6	5.1	19.5	11.2	20.1	2.9
일반손해보험	9.5	6.3	9.9	3.9	10.5	7.1	11.1	5.1
퇴직연금	10.8	10.2	11.8	9.3	12.6	6.7	13.6	8.4
퇴직연금 포함	91.1	3.1	95.6	5.0	101.5	6.2	106.1	4.5

맺음말

감사합니다

